

# 전통 시기 중국 문인의 관계 지향\*

— 《夢占逸旨·科甲篇》을 중심으로 —

강 증 임\*\*

##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관계 지향의 사회 |
| II. 과거 제도의 명암   | IV. 나오는 말     |
| III. 문인들의 관계 맺음 |               |

## I. 들어가는 말

《夢占逸旨》<sup>1)</sup>는 명대 陳士元(1516~1597)이 1562년에 편찬한 꿈에 관한 이론과 실용을 겸한 占夢書이다. 이는 곧 ‘꿈을 점칠 수 있는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의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책의 구성도 이론 부분인 내편 10편과 꿈과 관련된 징조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록한 외편 20편으로 구분되어 있다.<sup>2)</sup>

진사원은 당시 문단의 영수인 王世貞(1526~1590)과 나란히 거론될 정도로 세간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 그가 관직에 오른 지 5년 만에 귀향해 저술에 매진하였으며, 많은 저작 가운데 하나가 《몽점일지》이다. 그의

\* 이 연구는 2018년 동국대학교 DG선진강화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경주)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본고에서는 《夢占逸旨》 藝海珠塵本(《續修四庫全書》[1064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과 陳士元 著, 金載斗 譯注, 《몽점일지》(서울: 은행나무, 2008)를 참고하였음.

2) 陳士元 著, 金載斗 譯注, 앞의 책, 10쪽 참조.

박학함은 이 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에 수록된 꿈의 사례는 자그마치 773건에 달하며,<sup>3)</sup> 수록된 꿈의 당사자가 소설 속의 인물인 6명에서 가공인물로 추정되는 3명을 빼면 632명이나 된다. 이 실존인물 가운데 평민은 남녀 15명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역대 관리들이다. 이는 저자가 문헌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인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4)</sup>

《몽점일지》의 가치는 물론 고대 중국의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양의 점몽서라는 점에 있다. 하지만 그 책에 수록된 600여 명의 실존 인물들, 특히 공직에 있었던 문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서사 자료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몽점일지》에 수록된 대다수의 문인들의 모습을 통해 고대 중국 사회의 단면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몽점일지》 외편 중에서도 문인들이 일생을 두고 절대적 과제로 여겼던 과거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科甲篇〉을 중심으로 과거 제도로 인해 형성되었던 중국 특유의 문화와 심리를 고찰할 것이다.

〈과갑편〉에는 총 50조목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것들은 《唐摭言》을 비롯한 《靑箱雜記》·《南部新書》·《江南野史》·《雲溪友議》·《唐闕史》·《史略》 등에서 인용되었다. 그 내용은 주로 당대, 오대로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건문, 일화, 시화 등의 잡기류 고사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로 과거 급제나 승진을 미리 예견해 주는 신기하고도 영험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물론 합리적인 이해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현실에서의 바람을 예견하고 또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과거 제도의 시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당대 이후부터 민간에 팽배해 있던 ‘꿈은 일종의 무엇인가를 예견하게 해 주는 징조’<sup>5)</sup>라는

3) 이러한 사례들은 40종의 正史類와 125종의 野史雜記類, 그리고 地理志, 傳記, 文集, 韻書, 詩話集, 職官記, 曆書, 茶譜, 棋訣, 歲時記, 氏族大全 등의 문헌에서 인용되었다(陳士元 著, 金載斗 譯注, 앞의 책, 11~12쪽 참조).

4) 陳士元 著, 金載斗 譯注, 앞의 책, 10쪽.

굳건한 믿음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당대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갑편>의 첫 구절에 “과거에 급제하거나 작위, 품계를 받음에 있어서 어찌 징조가 없겠는가?(科甲爵品, 莫不焉前兆焉)”라는 말을 제시했다. 곧이어 많은 문인들의 꿈이 징조를 증명하는 예시로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꿈이 무언가를 예견해 주는 징조라는 믿음이 <몽점일지>의 저자인 진사원의 시대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갑편>에 기록된 50조목의 이야기 속에는 과거 급제나 관직에서의 승급에 관련된 일들이 꿈을 통해 예견되는 다양한 방식이나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꿈에 본 형상을 한자로 풀어 그 글자가 의미하는 뜻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 꿈에 본 형상의 숫자나 모양으로 앞으로의 결과를 예견하는 상황, 시험 전에 試題를 미리 보게 된 꿈, 주임 감독관[主考]이나 지인, 혹은 가족이 누군가의 과거 급제를 꿈에서 꾸 경우, 먼저 작고한 지인이 꿈에 나타나 관직의 승급을 알리는 경우, 꿈을 통해 전달된 신적 존재나 조상의 예견이 들어맞는 경우, 그리고 신에게 기도를 하여 미래를 알게 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의 배후에는 꿈이 과연 영험했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전통 시기 중국 문인 사회 전반에 만연했을 성공을 지향하는 간절한 심리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도 친분이 있는 두 사람 간의 꿈과 그 영험함, 혹은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 시험의 주임 감독관이 꿈에서 과거에 급제할 사람을 미리 알려 주는 경우 등의 이야기를 집중 분석할 것이다.

꿈의 영험함을 논하자면 이 이야기들은 수많은 신비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꿈의 서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꿈의 영험함은 본 논의의 주요 대상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특별히 이 이야기들을 소재로 택한 것은 중국 특유의 관습인 ‘관계’에 대해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5) 程薔·董乃斌, 《唐帝國的精神文明》,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468쪽.

믿음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꿈의 담론을 넘어서 전통 시기 중국에서 천삼백 여 년 간 과거 시험이나 관직에 얽매인 채 살아가던 수많은 문인들의 삶에 어찌면 누군가와와 ‘관계’가 중요했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을 본 논의의 발단으로 삼고자 한다.

## II. 과거 제도의 명암

중국의 과거 제도와 관련한 위취우위(余秋雨, 1946~)의 매우 객관적인 서술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隋唐에서 宋元을 거쳐 明清에 이르기까지 과거 제도는 중국 문명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동반자의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과거제의 직접적인 결과를 통해 10만이 넘는 進士와 100만이 넘는 舉人이 선발되었다. ....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역대 관원을 구성하는 핵심이었으며, ....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중국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동원되었으며, 역대로 끊이지 않고 지속된 이러한 동원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중국 문인들의 독특한 운명과 더불어 대다수 민중들의 마음속에 독특한 심리 상태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중국민족의 群體 인격에 내재적인 낙인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sup>6)</sup>

과거 제도는 매우 합리적인 취지를 지닌 관료 선발제도였으며, 근세 유럽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활용할 정도의 우수한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너무나 많은 폐단을 양산했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민족의 내재적인 낙인”이라는 위취우위의 언급은 과거 제도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과거 제도의 부정적인 면은 단언하건대 지금까지도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 위취우위, 유소영·심규호 옮김, 《천년의 정원》, 서울, 미래M&B, 2003, 332쪽.

과거 제도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수한 인재 선발 제도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를 지적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시험이 상대적으로 글을 배울 수 있었던 특정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험이 거듭 치러지고 급제자들이 축적될수록 문인들 사이에는 기회주의적인 행동, 정치적 격전, 과도한 경쟁, 청탁과 봉당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야기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 제도를 둘러싸고 만들어진 중국 문인들의 독특한 운명과 민중들의 독특한 심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진지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고대의 지식인들이 일생동안 현실에서 조우하고 실천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일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科擧의 권위를 위하여 과거 이외의 정규적인 승진의 길을 폐쇄시켰다.<sup>7)</sup> 그 결과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많은 문인들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글자를 깨치면서부터 빠져들게 된 유교적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글 밖에 할 줄 모르는 그들만의 생존을 위해 과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唐代에도 마찬가지였다.

300년 이래 과거가 개설되어 초야의 선비는 이를 통해 집안을 일으키길 바라고, 벼슬아치의 자제는 이를 통해 대를 이어가길 바라며, 빈한한 집안에서 과거에 실패하면 그 가족이 굶주리고, 대대로 벼슬하는 가문에서 과거에 실패하면 그 문족이 끊어진다(三百年來, 科甲之設, 草澤望之起家, 簪紱望之繼世, 孤寒失之, 其族餒矣, 世祿失之, 其族絕矣).<sup>8)</sup>

《당척언》의 기록은 실로 매우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갖가지 이유로 과거를 보려 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험의 결과가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영욕이나 생존과도 직결되었음을 알 수

7) 위치우위, 유소영·심규호 옮김, 앞의 책, 344쪽.

8) 王定保 지음, 김장환 옮김, 《당척언》[하], 서울, 학고방, 2013, 33~34쪽.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다양한 규약과 관습들은 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과 관련한 과거 제도의 여러 양상 가운데서도 특기할 만한 것으로 바로 ‘추천’을 들어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필기시험으로만 응시생의 실력을 평가하던 송대 이전, 즉 당대에는 과거 시험과 아울러 추천의 방법이 공존했었다. 당대의 많은 기록들에는 李白이나 王維, 皮日休처럼 문인들이 스스로를 추천하는 自薦도 많았고, 추천받은 사람들의 등수가 과거 시험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한 번에 몇 백, 몇 천 명씩 운집해 있는 응시자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재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창작해 미리 돌려 글재주를 잔뜩 과시한 行卷이 유행하기도 했다.

응시자가 과거 시험 이전에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가졌으며, 또한 그의 삶은 어떠한지의 문제 역시 시험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다. 인재 선발에 있어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해 보인다. 마치 현 사회에서 인성의 중요성이 새삼 중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인물이 당대의 柳宗元이다. 그는 ‘先聲後實’, 즉 먼저 추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실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른바 명성을 앞에 두고 실력은 뒤에 둔다는 계책을 어찌 병가에서만 쓰겠는가? 비록 선비라 할지라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 지금 같은 경우 州郡에서 有司에게 나아가 진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년 수백 명이다. 이들은 모두 글을 많이 짓는데 그 내용은 현안을 다루면서도 사용하는 말은 옛 말이고, 화려함을 다루면서 분량을 늘리는 일에만 힘쓰고 있다. 유사가 하루에 받는 글은 거의 천만 자에 가까워 그 십분의 일도 읽어낼 수가 없다. 위아래로 읽어가는 동안에 피곤해지고 체력이 소진되니, 눈은 어질어질하여 더 이상 읽고 싶지 않고, 마음으로는 포기하여 일하고 싶지가 않다. 이와 같은데도 “나는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다만 이미 명성이 알려진 사람은 그 문장을 읽을 때 눈과 마음

이 반드시 집중될 것이고 이런 이유로 해서 낙방하는 경우는 드물다(所謂先聲後實者, 豈惟兵用之然, 雖士亦然. 若今由州郡抵有司求進士者, 歲數百人, 咸多為文辭, 道今語古, 角夸麗, 務富厚. 有司一朝而受者幾千萬言, 讀不能十一, 即偃仰疲耗, 目眩而不欲視, 心廢而不欲營, 如此而曰吾能不遺士者, 偽也. 唯聲先焉者, 讀至其文辭, 心目必專, 以故少不勝).<sup>9)</sup>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할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요즈음의 추세로 보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당시에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추천은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런데 당대의 시인인 왕유의 경우는 추천이 당락의 변수가 아닌 결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과거를 앞두고 공주를 찾아가 자신의 재능을 한껏 과시하려 했다. 그 이유는 짐작하는 것처럼 공주가 자신을 추천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왕유는 친구의 도움으로 공주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공주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작품을 들려주며 재능을 마음껏 과시하였다. 그 일을 옛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날 여럿이 왕유가 연주하는 것을 들으며 둘러앉아 있는데, 공주가 제목이 무엇인지 물었다. 왕유가 “《울륜포》”라고 답하며, 준비한 詩卷을 공주에게 드렸다. 공주는 “이것은 내가 평상시에 반복하여 읊던 것이오. 지금 까지 옛 시인의 작품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대의 작품이군요?”라고 하였다. 공주가 왕유를 이끌어 상석에 앉히며, “京兆尹은 이 사람을 장원으로 해야 영예로운 일이 될 것이오.”라고 힘써 추천했다. 개원 19년(731)에 왕유가 장원급제를 하였다(是日, 諸伶擁維獨奏, 主問何名, 曰: “《鬱輪袍》.” 因出詩卷. 主曰: “愜我習諷, 謂是古作, 乃子之佳製乎?” 延於御上座, 曰: “京兆得此生爲解頭, 榮哉!” 力薦之. 開元十九年壯元及第).<sup>10)</sup>

9) 유종원 지음, 오수형·이석형·홍승직 옮김, 《유종원집》[2], 서울, 소명출판, 2009, 339쪽; 柳宗元 著, 《柳宗元集》[2], 北京: 中華書局, 2000, 628쪽.

10) 傅璇琮 主編, 《唐才子傳校箋》, 北京, 中華書局, 2000, 287~290쪽.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과거에서의 추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함께 앞서 말한 유충원의 주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시험 감독관의 역할이 과거의 당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물론 위의 이야기에서처럼 감독관의 배후에는 당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추천을 평가하여 시험에 반영할지의 여부는 감독관이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감독관과 응시생 간에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올바르고 마땅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험의 결과가 가져다줄 막대한 이익을 쌍방 모두가 알기에 서로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상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추천으로 인한 온갖 음흉한 수단과 방법이 난무하여 결국 송대에는 추천이 금지되었다. 추천이라는 형식을 통해 형성된 인맥과 그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폐해를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Ⅲ. 문인들의 관계 맺음

《몽점일지》의 〈과갑편〉을 보면 감독관과 수험자 사이의 인간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앞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그 관계는 바람직한 것으로까지 여기게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진사원이 《몽점일지》에서 이야기하는 꿈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결과의 필연을 보증하는 증거라고 느끼게 할 만큼 설득력을 갖는다. 그래서 《몽점일지》에서 꿈이 보여주는 서사는 흥미진진하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묘한 매력을 갖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꿈의 타당성이 아니라, 문인들 사이의 인간적 ‘관계’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중국 특유의 관습인 ‘관계’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몽점일지》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韋詞는 꿈에 李固言이 장원을 하는 꿈을 꾸었다.**

원화 6년(819), 韋詞는 京兆에서 원릉염사의 부하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사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李故言’이라고 쓰인 명함을 건네주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내년에 장원급제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는 원화 초기였는데 ‘李顧言’이라는 사람이 급제하자 위사는 그 일을 매우 의아해 했다.

“이름 중에 ‘故’자가 들어간 사람은 매우 드문데 [어찌 또 李固言이라는 사람이 있겠는가?]<sup>11)</sup>”

가을 8월에 과연 향시에 붙은 舉人이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네 왔는데, 모든 것이 꿈과 똑같고, 단지 이름의 ‘故’자가 ‘固’자로 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는 바로 서진의 장수 李公이었다. 위사는 말했다.

“그대는 내년엔 반드시 으뜸으로 급제할 것이오.”

그해 겨울에 병부시랑 許孟容이 知貢舉로 뽑혔고, 과연 李固言을 장원으로 뽑았다(韋詞夢狀頭李固言. 元和六年, 京兆韋詞, 爲苑陵廉使, 房武從事. 夢一人投刺, 題曰李故言. 俄有人言明年及第狀頭. 是時元和初, 有李顧言及第, 意甚訝之, 謂名中少有故字, [焉得復有李故言哉?] 秋八月, 果有取解舉人, 具名投刺, 一如夢中, 但故爲固耳, 卽今西師李公也. 詞曰, 足下明年必擢第, 仍居衆君之首. 是冬兵部侍郎許孟容知貢舉, 果擢爲榜首).<sup>12)</sup>

이 이야기는 《太平廣記》에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續定命錄》에서 인용한 고사이기도 하다. 韋詞(773~830)는 젊은 나이에 전적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을 주관하는 秘書省 校書郎을 역임했으며, 문종 즉위 후에는 中書舍人에 제수되었다. 그가 중서사인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문사와 학식이 뛰어났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직책이 황제의 조령에 관한 초고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11) 괄호 속의 이 구절은 《太平廣記》 권278 〈韋詞〉(李昉 等撰, 《文淵閣四庫全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를 참고해서 보충한 내용이다.

12) 陳士元 著, 金載斗 譯注, 앞의 책, 338쪽.

칭립함으로 많은 칭송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였다.<sup>13)</sup>

위의 이야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드라마틱한 과정은 누구에게나 흥미를 갖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꿈의 영험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말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許孟容(743~818)<sup>14)</sup>의 이야기를 참고한다면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당서》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재구성해 보았다.

위사가 꿈에 보았다고 하는 장원급제의 주인공인 이고언은 원화 6년에 진사과에 시험을 치르려고 장안에 왔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져 사촌 집에 기거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를 우둔하다며 놀려대었다. 그렇게 지내던 이고언에게 사촌은 아주 관직이 낮은 허맹용에게 인사를 시켜주었다. 이고언은 허맹용의 관직에 상관없이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다. 이에 허맹용은 자신의 낮은 관직을 생각하고서 매우 쑥스럽고 민망해했지만, 이고언의 사람됨이 진솔함을 보고 그를 마음에 두었다. 그 이듬해 허맹용은 병부시랑으로 승진하면서 과거 시험의 주임 감독관이 되어 이고언의 됄됨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장원으로 뽑았다.<sup>15)</sup>

이고언은 평소 말더듬는 버릇이 있는데다, 과거 시험의 꼴찌가 장원이 되었으니[等第末爲壯元]<sup>16)</sup>,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

13) 劉昫等撰, 《舊唐書》卷160, 北京, 中華書局, 1995, 4214~4215쪽.

14) 許孟容이 元和(806~820) 초기에 京兆尹을 맡고 있었을 때, 李昱이라는 관리가 어느 부호의 돈을 빌려 쓰고, 그 돈을 갚지 않자 이육을 잡아들여 갚도록 명하였다. 이때 당시 황제가 허맹용에게 이육의 석방을 요구하자, 상소를 올려 불가함을 고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劉昫等撰, 《舊唐書》卷154, 〈許孟容〉, 4102쪽 참조).

15) 이 개략적 내용은 《구당서》 권149 〈歸宗敬〉과 권173 〈李固言〉, 그리고 《태평광기》 권155 〈李固言〉에서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외에도 《西陽雜俎》와 《蒲錄記傳》, 《感定錄》 등에 이고언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16) 王定保 지음, 김장환 옮김, 앞의 책, 97쪽.

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찢어졌던 이고언이 어떻게 장원으로 합격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임 감독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시험 감독관이 과거의 당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王鏊와 錢福의 장원은 전부 주임의 꿈에 감응하였다.**

《說錄》에 이르길, 성화 11년(1476) 을미년 會試에 徐溥와 丘濬이 주임 감독관[主考]을 맡았다. 서부가 꿈을 꾸었는데 매우 넓은 호수에서 큰 자라가 나타나 언덕 위까지 올라와 서부에게 절을 하는데 머리에 화살 3개가 꽂혀있었다.

회시의 방을 열어보니 王鏊가 일등이었는데, 그의 집은 太湖였다. 그 후에 서부가 또 그를 학사로 추천하고 소첨사로 추천하였다. 모두 회시 때 꿈에서 본 세 개의 화살이 응험을 보인 것이다(王鏊錢福爲狀頭, 並應夢於主考. 《說錄》曰, 成化十一年乙未會試, 徐溥·丘濬主考. 溥夢大澤中一物若龜, 叩首登岸, 以三箭插其上. 開榜王鏊第一, 鏊家太湖. 其後溥又薦爲學士, 薦爲少詹事, 併會試爲三箭之驗).<sup>17)</sup>

徐溥(1428~1499)는 젊은 나이에 진사에 급제하여 翰林編修를 맡은 이 후부터 1498년 首席大學士로 소임을 다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공직에 있었던 명대의 대신이다. 그는 弘治 5년(1492) 수석대학사에 올라 李東陽(1447~1516) 등과 함께 內閣에서 12년 간 국정을 운영하였다. 특히 인재를 귀히 여겨 작은 잘못이나, 억울하게 투옥된 많은 젊은 인재들을 여러 차례 구제해 주었다.<sup>18)</sup>

위의 이야기에서 徐溥와 같이 주임 감독관을 맡았던 丘濬(1421~1495)은 명대 저명한 사상가이자 문학을 비롯해 정치와 경제에 정통한 학자로서 文淵閣大學士를 지냈다. 특히 그의 대표적 저술인 《大學衍義補》는

17) 陳士元 著, 金載斗 譯注, 앞의 책, 335쪽.

18) 張廷玉 等撰, 《明史》 卷181, 北京, 中華書局, 1995, 4805~4807쪽 참조.

孝宗(1487~1505 재위)의 칙명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sup>19)</sup>

당시 정계와 문단의 중심에 있던 두 인물이 감독관을 맡았으니 그때의 會試가 특히 주목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서부가 회시 때 꾸넌 꿈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의 핵심은 서부가 王鏊(1450~1524)를 상징하는 동물, 즉 머리에 화살이 세 개가 박힌 자라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후 왕오의 행적은 꿈이 예시하는 것처럼 이루어졌다.

徐溥가 꾸넌 꿈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넓은 호수라는 것은 太湖를 가리키는데 태호는 왕오의 거주지이고, 큰 자라[大鰲]는 “王鏊”의 “鏊”와 독음이 동일하다. 화살 셋은 장원급제, 학사, 첨사를 가리키는 것<sup>20)</sup>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서부의 꿈은 왕오의 현실적 상황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영험함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왕오의 행적을 보면 꿈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일이 된다. 그는 16세에 부친을 따라 국자감에서 실습할 만큼 어려서부터 문장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런 그가 成化 11년(1475)에 禮部에서 주관하는 회시에서 장원으로 급제하고, 한림편수에 제수되어 순식간에 천하에 이름을 떨쳤다.<sup>21)</sup> 그의 학식이나 문장은 당시 문풍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王守仁(1472~1529)으로부터 완벽한 사람[完人]<sup>22)</sup>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후 그는 관리사회에서 徐溥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이력을 남겼다. 또한 그가 저축해 놓은 재산이 한 푼 없을 정도로 청렴했다는 점 역시 서부와 같았다.

우리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주목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영험한 꿈의 배후에 깔려 있는 매우 현실적인 인간관계이다. 이것이 비록 꿈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당시의 문단 혹은 관직 사회의 상황을 짐작하게 해 준다. 아마도 서부는 왕오를 보면서 자신의 이력과 비슷하거나, 혹

19) 張廷玉 等撰, 《明史》 卷181, 4808~4809쪽 참조.

20) 陳士元 著, 金載斗 譯注, 앞의 책, 357쪽.

21) 張廷玉 等撰, 《明史》 卷181, 4825쪽.

22) 王守仁 撰, 《王陽明全集》[上] 卷25, 〈太傅王文格公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946쪽.

은 앞으로 자신과 유사한 길을 갈 것 같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인재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런 직감은 주임 감독관과 급제자를 암묵적이고도 강력한 연결고리로 맺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보다 더 필연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주임 감독관의 예견된 꿈이라는 신기하고 영험한 기재였다는 것은 쉽사리 판단할 수 있다.

위에 든 몇 가지 예의 이야기들이 주로 과거 급제자에 대한 예지몽을 묘사한 것이라면, 다음의 이야기는 급제 뿐 아니라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추천이 중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沈裕는 오품의 벼슬을 받을 수 있었다.**

《태평광기》에 이르기를, 沈裕와 州의 別駕인 戴胄<sup>23)</sup>는 친하게 지냈다. 대주가 정관 7년(633)에 갑자기 죽었다. 정관 8년(634) 8월 심유는 州(의 관저)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에 경사에 갔는데 義勇坊의 서남쪽 거리에서 대주와 마주쳤다. 대주가 몹시 반가워하며 말하였다.

“자네와 나는 오랫동안 친밀했었지만 결국 자네를 승진시키지 못했었네. 그대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5품관을 얻는 문서가 이미 조정으로 전해졌으니 내가 그것을 알리려고 온 것일세.”

심유는 과연 5품관 棗州(刺史의 고급 보좌관인) 治中從事史[治中]를 제수받았다(沈裕可授五品之官. 《太平廣記》曰: 戴胄與州別駕沈裕善, 胄以貞觀七年死, 至八年八月裕在州, 夢行京師義勇坊西南街見胄, 謂曰: 吾平生與君善, 竟不能進君官位, 君今自得五品, 文書已過天曹, 故相報, 裕果授五品, 棗州治中).<sup>24)</sup>

23) 戴胄은 수나라 말기 왕세충의 태위로 일하면서 찬탈을 계획하는 왕세충에게 찬위의 그릇됨을 간언한 것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수말당초 이세민이 당 태종에 즉위하고 난 후에 兵部郎中을 거쳐 상서좌승을 지낸 고위관료였다. 그는 개국 이래 가장 유능한 상서좌승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으며, 매 번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해에 비축한 식량이 충분히 민생을 구휼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관 2년(628) 義倉을 만들어 관리들과 백성들이 기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정관 4년에는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나, 정관7년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당태종이 그의 죽음을 크게 상심하여 3일 간 정무를 보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劉昫 等撰, 《舊唐書》 卷70, 北京: 中華書局, 1997, 2531~2535쪽 참조).

위의 이야기는 친밀한 관계의 두 사람, 엄밀히 말하자면 살아 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이 꿈을 통해 교감하였다는 신기함에 주된 맥락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꿈에 나타나 친구에게 건네는 대주의 말에는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 담겨져 있다. 즉 대주가 재상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면서도 심유를 더 높은 관직에 오르도록 추천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추천이 당연시되어 매우 성행하던 당대의 상황에서 높은 지위의 친구를 두었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든든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일 대주가 마음만 먹었다라면 심유의 관직 생활은 대체로 평탄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강직하고 올곧았던 대주는 아마도 친구를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 미안했던 마음을 갚으려 승진 소식을 전하러 꿈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그때 당시 유능한 재상이었던 대주는 하지 않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했던 추천의 사회적 기능을 반증해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면, 대주가 심유에게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을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는 일은 비리가 아닌 당연한 일로 여겨졌기에 대주는 심유에게 더없이 미안했던 것이다. 우리는 추천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용인으로부터 ‘친밀한 관계-추천-승급’이라는 관료 사회의 공공연한 인맥의 구조적 특징을 역추적할 수 있다.

위에서 예를 든 몇 가지 이야기는 꿈이라는 비현실적 소재 속에서 이루어진 추천과 그것의 영험함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그때 당시의 실존 인물로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시험관이거나, 앞으로 높은 관직에까지 오를 뛰어난 인재들이라는 점에서 ‘추천’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24) 陳士元 著, 金載斗 譯注, 앞의 책, 350~351쪽.

이 같은 인재의 추천이 가능한 이유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 주고 또 그것을 받아주는 관리가 모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선발하는데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공정하게 심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 그래서 누가 과거에 급제하고, 승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관계의 형성이다. 그런 인간관계는 개인과 개인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는 끈을 형성하고, 종당에는 정치적 차원에서 봉당을 이루고 편을 가르고 심지어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정의도 손쉽게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지향하는 가치는 결국 자신의 봉당과 편이기 때문이다.

#### IV. 관계 지향의 사회

《몽점일지》의 이야기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꿈의 영험함이다. 꿈의 영험함을 경험하게 되는 인물들 간에는 서로 친밀한 관계인 경우도 있고,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관계도 있다. 서로 아는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꿈의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경험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는 깊은 생각이 꿈으로 현현하는 경우일 것이고, 후자는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한 대단한 인재에 대한 포장이거나, 필연성들을 더해주려는 하나의 장치일 것이다.

그런데 그 모두는 불합격한 사람이 아닌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자든 후자든 모두 그 합격의 당위성 내지는 필연성을 강조하려는 포장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꿈을 동원해서까지 합격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려 했을까라는 의문이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는 합격하기가 여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합격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에 합격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대단한 과거 시험의 통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꿈을 통해 그 당위성과 필연성을 포장하려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과거 시험이 그만큼 부당성과 우연성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오염이란 바로 주임 감독관과 수험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과거 시험에서 주임 감독관이 당락의 절대권을 가질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시험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조정에서도 이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과거 시험 일자에 맞춰 시험관은 중앙에서 임시로 선발하여 각 성으로 파견하였다. 그 인원은 각 성마다 正考官 1명과 副考官 1명이었다. 이들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띠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미리 파견 가능한 관리들을 모아 시험을 치른 뒤 임명하였다. 그리고 누구를 어디에 파견할 것인지는 마지막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예기치 못한 부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게다가 시험관이 도착할 때는 그 지역의 대관을 비롯해 총독, 순무, 포정사, 지부 이하 인사들이 모조리 마중을 나와 정중히 응접하였다.<sup>25)</sup>

이처럼 과거 시험의 주임 감독관은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 합격한 진사들은 스스로 주임 감독관의 문하생을 자처하였다. 그것은 주임 감독관이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주임 감독관 아래로 과거에 합격한 진사들이 모여들자 그에게는 후진을 양성할 기회도 저절로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권력이 한 사람에게 모여지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거기에 기생하려는 온갖 군상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과거 제도에 의해

25)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앞의 책, 74~77쪽.

형성된 주임 감독관과 문하생의 관계는 과거 제도라는 국가 공인의 인재 선발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져갔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만 보면 과거 시험은 장군이 줄개를 모집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

과거에 합격한 진사는 자신을 뽑아준 주임 감독관에 대한 보은을 평생토록 갚아야만 했다. 때로 필요하다면 죽음으로 보답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일종의 결사조직과 유사한 성격의 작은 사회구조가 형성되면서 구조 내부의 무원칙적인 규합을 통해 구조 외부의 모든 것에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상부정치 내부에 뿌리 깊은 병폐가 생겨났으니, 이것이 바로 붕당이다.<sup>26)</sup>

당대의 명재상이었던 李德裕도 붕당의 폐해를 없애고자 노력했다. 그 노력이란 다름이 아닌 감독관과 문하생 간의 유착관계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그런 노력도 그가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sup>27)</sup> 당대 이후에도 의식 있는 정치가들에 의해 감독관과 문하생 사이의 관계를 없애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한번 형성된 그 관계는 시간이 축적되면서 거대한 흐름이 되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관직 사회에서 공공연히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져온 이런 관계는 그것이 지속되어온 시간의 축적만큼이나 중국인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앞에서 말한 ‘내재적인 낙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추측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전통 시기에 있어 과거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출세의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 시기에 과거 시험을 둘러싼 중국인들의 관념과 관습 및 행태를 보면, 그에 대한 의존성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임을 알 수 있다.<sup>28)</sup> 그들의 과거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필연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초

26) 위치우위, 앞의 책, 393쪽.

27) 위치우위, 앞의 책, 393~394쪽 참조.

28) 전통 시기 아들을 귀히 여기는 뿌리 깊은 전통 역시 아마도 과거 제도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딸아이는 태어나 3일째가 되면 침대 아래 흙바닥에 내려놓고

래하였다. 그들은 합격을 위해 단순히 실력을 쌓는 것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과거 시험의 합격에 대한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기에 그런 방법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모방하거나 더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과거 급제 이후에도 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가능한 인맥을 총동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끝없는 욕망이 중국인들의 관계 지향적인 성향을 배태하는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관계는 흔히 ‘판시’라고 일컬어지며 중국 사회를 특징짓는 친숙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단순한 의미에서의 ‘판시’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호의를 얻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지속적으로 호혜와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 말하는 관계, 즉 ‘판시’는 단순한 우정이나 대인 관계 이상의 무엇을 뜻한다.<sup>29)</sup>

중국사회를 특징짓는 ‘판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중국, 더 구체적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변화해 가는 중국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판시’가 일반적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기원을 가진 부정적인 관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연구는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판시’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논지의 주장이 많다.

흔히 중국의 ‘판시’ 문화를 유교적 가족 관념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판시’에서의 가족 관념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부수하는 개념

---

기와나 들팽이를 쥐게 했는데, 이는 성장한 후에도 항상 타인에게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아들이 태어나면 하인들에게 지급하는 축하문에도 장원급제라고 주문을 새긴 동전을 나눠주곤 했다. 장원급제야말로 부모 뿐 아니라 가문 전체의 최대 희망이었다(미야자키 이치사다, 앞의 책, 21쪽).

29) 최은영, <중국 판시(關係)문화의 의미와 그 변용>, 《담론201》 제10권 2호, 2007, 260쪽.

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대부분의 지식인이 열망하면서 천 년이 훌쩍 넘도록 국가적 행사로서 벌어지던 과거 제도야말로 진정 중국 민족의 정서 속에 ‘관계’를 양산하고 ‘관계’에 의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 V. 나오는 말

아주 오랜 옛날 堯임금의 태평성세에 백성들이 부르던 〈擊壤歌〉의 구절을 잘 생각해보면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즉 평범한 백성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정의 기본으로 삼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군주 한 사람만의 역할이 절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리더들이 인재를 얻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수없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인재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되고, 그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과거라는 우수한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 제도의 긴 생명력은 중국인들의 인재를 중시하던 정서와 국가에 쓰일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관념과도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몽점일지》의 꿈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주임 감독관의 꿈을 통해 예시된 인재의 발탁이나, 추천을 통한 관직의 승급 등은 꿈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이 개입되면서 꿈을 꾸 자와 그것으로 인한 수혜자 간의 더욱 더 짙은 운명적인 관계를 상상하도록 만든다. 앞서 예시로 든 몇 가지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양식의 관계 맺음들이 이야기라는 양식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야기 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관계는 일어나고 있다.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황혼을 보내던 청대 말기, 중국의 근대를 살

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했었던 康有爲(1858~1927)는 유학의 고전인 《예기》에서 찾은 대동사회, 즉 正道가 시행되는 이상적인 세상을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해독은 가족과 국가이며, 자신의 시대에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족과 국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류가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간사하고 남을 속이게 된 것은 가족이 만들어 낸 폐단이라는 것이다.<sup>30)</sup> 강유위에 대한 후세의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 그의 이러한 언급은 중국 사회의 가장 기본인 가족과 국가를 부정하고 있다는 데에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가족의 이기주의는 국가로 확장된다. 중국인에게 가족은 국가의 시작이 아니었던가. 21세기 현 시점에도 중국인에게 가족과 국가는 어쩌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닌가.

설령 궁극적 의미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강유위의 언급은 관계 지향이 만연한 사회의 부조리를 직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관계 지향적 성향은 지금까지 중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사람 간의 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든 간에 중국에서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것은 중국의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속담 가운데 “주방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밥 먹기 좋고, 조정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벼슬하기 쉽다(廚房有人好吃飯, 朝里有人好作官)”라는 말은 중국인들의 관계 의존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심리는 어느덧 중국의 사회적 보편성으로 인식되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이성적 가치판단과 무관하게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 제도를 통한 중국인의 관계에 대한 관념의 이해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30) 전호근, 〈가족을 없애고 국가를 해체하라〉, 《한겨레신문》 2018년 11월 2일.

31) 최은영, 앞의 논문, 265쪽.

< 참고문헌 >

1. 陳士元 撰, 《夢占逸旨》, 《續修四庫全書》[1064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2. 陳士元 著, 金載斗 譯注, 《몽점일지》, 서울, 은행나무, 2008.
3. 程薈·董乃斌, 《唐帝國的精神文明》,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4. 최은영, 〈중국 판시(關係)문화의 의미와 그 변용〉, 《담론201》 제10권 2호, 2007.
5. 傅璇琮 主編, 《唐才子傳校箋》, 北京, 中華書局, 2000.
6. 전호근, 〈가족을 없애고 국가를 해체하라〉, 《한겨레신문》 2018.11.02.
7. 李昉 等撰, 《太平廣記》, 《文淵閣四庫全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8. 劉昫 等撰,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7.
9. 劉文英 著, 하영삼·김창경 역, 《꿈의 철학》, 서울, 동문선, 1993.
10. 柳宗元 撰, 《河東先生集》, 《四部叢刊正編》, 서울, 法仁文化社, 1989.
11. 柳宗元 著, 《柳宗元集》[2], 北京, 中華書局, 2000.
12. 유종원 지음(오수형·이석형·홍승직 옮김), 《유종원집》[2], 서울, 소명출판, 2009.
13.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전혜선 옮김), 《과거, 중국의 시험지옥》, 고양, 역사비평사, 2016.
14. 王定保 지음, 김장환 옮김, 《당척언》[하], 서울, 학고방, 2013.
15. 王守仁 撰, 《王陽明全集》[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16. 위치우위(유소영·심규호 옮김), 《천년의 정원》, 서울, 미래M&B, 2003.
17. 張廷玉 等撰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97.

< Abstract >

The effort to select human resources in systematically and fair made an excellent system called a state exam. The long existence of state exams is deeply connected to Chinese human based sentiments and their obsession to raise human resources essential for the country.

These ideas are well shown in the story of dreams in “*MengZhan YiZhi*”. The selecting the human resource foreseen through main examiner’s dream and the promotion through recommendation makes us imagine the deeply destined relationship between the dreamer and the beneficiary by intervening mysterious phenomenon of dreaming. The few examples given here is just a tip of the iceberg. I insist there are other countless vertical relationships or various types of relationships in stories. Indeed, it should have been happened and still is happening in this time both in the stories and real life.

The relationship-oriented propensity is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to explain China’s identity. Additionally, the psychology is already been acknowledged as social norm in China. The important question is not the rational determination on whether it is desirable, but regardless of the question, it is still emphasized in Chinese society.

**Key Words** : 과거제도(The system of state examination), 과거급제(civil service exam candidate), 승진(promotion), 강박관념(obsession), 관계(relationship), 꿈(dream), 사회적 보편성(social universality)